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룩할 주님의 교회 여중들



계절의 여왕 오월 산과 들 온통 푸른 생명을 키워내고 있다.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5월 11일 화요일 곤지암 잠실 교회 수련원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 열렸다. 처음으로 치뤄지는 여전도회 연합수련회를 위해 1여전교회부터 6여전교회 회원들 배현성 목사의 지도로 기별로 3대의 버스로 출발을 하였다.

전진희 권사의 신나는 찬양과 감동과 여흥이 있는 찬양 인도로 수련회를 시작하였다. 제자화훈련 준비로 바쁜 박원호 담임 목사의 참석과 설교말씀은 커다란 은혜를 주었다. 창세기 45장(5-8) 말씀을 통해 주님의교회 비전

을 설명하며 구약의 대표적 신앙 고백을 통해 요셉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다. 5절 말씀으로 요셉의 고난 3가지를 말씀하시며 팔려가는 고난과 종이 되고 죄인이 되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처럼 악을 대적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영광을 위해 peace maker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가라는 권면의 말씀과 주님의교회 알곡 공동체로 12단계를 통한 말씀사역과 소그룹 활성화 앞으로 있을 제자와 사역을 통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랐다. 이어 국내외 선교를 위한 귀중한 중보 기도

의 시간을 가진 후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5여전도회 백희숙 집사의 "성격에 관한 사고"란 강의로 베드로와 마르다와 도마를 예를 들어가며 성격의 3가지 분류 중에 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를 직접 체크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를 마치며 내년에는 더 많은 주의 여중들이 참석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며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실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져보았다.

"주님의교회 주의 여중들이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 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기도드리지 않으시렵니까?" 하는 숙제를 가지는 귀한 수련회였다. <4여전도회 한경숙 집사>

편집부 기자모집안내

본 편집부에서는 <합즐함울>에 봉사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시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실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분야: 취재, 사진, 일러스트, 키톤
*연락처: 편집장-하태원 (019-313-3073)

|오늘의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 요일 4:12

통 권 제 265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0년 5월 30일

합즐함울

www.pclty.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로 템 나 무



| 사랑하기에 |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15:20)

사랑하기에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기에
다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기에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 품어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제 마음대로 자녀를 키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님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목공소를 차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구를 매고 집집마다 찾아갔다고 한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일을 하셨을 것이다. 그 때 예수님이 여러 가정의 문틈에서 본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행복한 웃음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아빠, 아이들의 그칠 줄 모르는 웃음소리는 예수님을 미소 짓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한 가정만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특성상 남에게 알리기도, 고통을 호소하기도 어렵다. 길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밤마다 지옥으로 변하는 가정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여전히 열린 문틈 사이로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혼을 세계1위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는 어느덧 자연스러워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너무 쉽게 사랑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향한 부푼 기대에 결혼을 하지만 그만큼이나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을 본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네 가정을 찾아오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단지 교회 안에 있다

는 것만으로 모든 가정들이 웃음이 넘쳐나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행복한 가정도 마냥 즐겁고 웃음만 가득한 곳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행복한 가정'보다 '건강한 가정'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가정'은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만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갈등과 싸움을 딛고, 오뎅이처럼 일어나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일 것이다. 단 한 번의 폭풍도 겪어본 적 없는 나무는 쉽게 쓰러진다. 그러나 뿌리지고 상처를 입으수록, 뿌리는 깊어지며 나무의 가지들도 단단해진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과 '상투적인 문구'들이 반복되지만 그 실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계신다고 믿는다. 무지개잔치, 상글매칭, 전교인 수련회 등 주님의교회의 여러 행사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아닐까?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오랜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합즐함/청년부>



2010 주님의교회 전교인수련회

*일시 : 2010.7.29(목) - 7.31(토) 2박3일

*장소 : 충주호리조트
(충북 충주시 동량면 위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등부 추천도서 독후감 _ 1학년 김지민 |

안수현 의사선생님께... 그 청년 바보의사를 읽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현 의사선생님을 존경하는 중학생 김지민입니다. 안수현 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읽었어요. 저도 안수현 형과 같이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형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가 아파도, 열도나고, 설사를 해도 교회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제 인생에 예배를 중시 여기고 있어요. 또 평일에는 아침마다 (시합날 아침까지도) 열심히 엄마와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와나'라는 교회클럽이 있는데 어와나 핸드북에 나오는 성경구절도 열심히 외워서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잘 대처하고 언제나 말씀은 기억하려고 노력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형처럼 전도를 잘 못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고 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형이라면 이럴 때 잘 대처 하셨겠지요?

우리 동네 의사들은 증상을 대충 듣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처방하고 돈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들에 대해 많이 실망했지만 형 같은 의사들도 있구나 참 좋았어요. 의사생활만 해도 힘든 판에 매일매일 시험들이 있어서 시험공부만 해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시험공부만 다 제치고 성경모임, 성경공부를 하셨다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형에 대해 감동받았던 것은 모르는 분한테도 찬양 테이프를 들고 하나님께 전도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형과 같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형은 오래 살고 결혼도 해서 좋은 가정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이 유혈성 출혈열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다니 정말 슬퍼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연세와 같은 33세에. 만약 형이 계속해서 살아 계셨다면 여기 저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가게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다른 일을 준비하셨나봐요. 제가 만약 아파 제 입원했을 때 저의 주치의가 형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저의 주치의가 형이라면 환자한테 잘 대해주고 항상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 고민이랑 어려움들도 잘 상담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는 형을 본보기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전도도 열심히 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게요. 형, 하나님과 함께 항상 저를 지켜봐주세요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바보 청년이 되고 싶은,
중등부 1학년 김지민 올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다. <욥기 1:21>

오늘은 욥의 이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귀한 책 한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레트병이라는 희귀질환으로

31세의 푸른 나이에 갑자기 시력을 잃고 중도 실명자가 된 김재홍 목사님의 책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내랴! 광에서 새 길을 찾는 산소망신교회 이야기>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결혼한 지 6개월만에 불치의 병에 걸려,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절망감에 휩싸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던 순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 죽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인하던 청년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너..."라는 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청년은 자신의 파라는 노력과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에 힘입어 신학교에서 공부하여 목사님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사안수를 받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를 불러주지 않자 다시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친척에게서 온 전화 한통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처럼 인생 중간에 시력을 잃은 중도실명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88년 시작된 '산소망신교회'는 20여년간 실명에 빠져있는 중도실명자들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왔으며, 재활을 통해 그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삶에서 마주치게 된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부부가 걸어 오신 기가 막힌 고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전해줄 책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꼭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윤정 기자>

선교연속강좌 (2번째, 3번째 강좌)	2면
성경암송대회 / 캄보디아 아이행 섬남	3면
여전도회수련회 / 중등부 추천도서 독후감	4면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세계선교의 현황 신방현 목사(총회세계선교부 총무)

현재 지구상에는 234개 국가에 68억의 인구가 24,000 종족 (11,000 미전도 종족)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에만 있으면 왜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세계 70%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공산권 10억, 모슬렘 11억, 힌두교 10억, 불교 6억). 10/40 창고 미전도 종족은 여전히 억압과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선교를 통해 오늘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선교를 위해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아브라함 안에서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인데 모든 민족과 족속에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와 그 해의

우리나라GNP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0 명 선교사 파송= GNP 5,000 \$, 10,000 명 선교사 파송= GNP 10,000 \$, 16,000 명 선교사 파송= GNP 16,500 \$, 20,000 명 선교사 파송= GNP 20,000 \$ 시대). 과거 25년 동안의 선교를 평가해 볼 때, 긍정적 인 면으로는 선교사파송 증가(492%), 선교동원력 증가, 한국인의 기질이 선교에 적합함, 디아스포라적 해외진출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보완점으로는 선교목표, 전략개발, 선교적교회 양성, 양질의 선교구축, 선교 시스템 구축, 선교네트워크 강화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4단계는 개척선교, 양육, 협력선교, 참여입니다. 한국선교는 이 모든 단계들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개교회위주, 경쟁주의적, 교회성장의 일부, 영적 이기주의, 물량주의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래한국선교를 더욱 건강하게 하기 위한 5대과제는 전략적 선교, 전략적 배치, 시스템 구축, 교회선교활성화, 선교리더십강화입니다. 더욱이 한국선교발전을 위하여 준비된 선교사 파송, 자비량선교사 중대, 독자선교모델 개발, 현금의 1/10을 선교로, 선교사자녀 동력화, 인재양성위한 투자 등이 집중 모색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단기선교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선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 하는데 쓰인 많은 것이 분명하지만, 2~3주 기간의 선교현장 탐방을 선교라 하기에는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돌씩 터져 나오는 부작용들은 선교지와 파송지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라는 용어를 비전트립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전트립은 선교현장을 보고, 선교지를 배우고, 선교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선교여행입니다. 이 비전트립의 목적은 섬기는 생활을 실천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선교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교의 이유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함으로써 장기적인 선교에 헌신하게 하려 합니다. 비전트립을 포함한 모든 선교의 영역에서 새롭게 헌신함으로 거듭나는 주님의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주님의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화시대의 선교 박성원교수(영남신대 석좌교수)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우리 삶의 핵심적 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악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비판적 경제 학자들은 오늘의 경제악화문제는 돈이 양이 아닌, 돈의 배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오늘의 세계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배경에는 인간은 끝없이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적 생각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제 인간은 후기인간시대(Post Human Era)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인간 복제를 연구하던 캐나다의 한 학자는 '우리는 지금 신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We are now entering into divine area.)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지구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기에 인간이 지금처럼 교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지구는 파멸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머리로만 추측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날마다 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존판크레네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850년부터 1950년까지는 1년에 한 종류의 생물이 사라졌는데, 1989년에는 하루에 한 종류씩, 2000년에는 한 시간당 한 종류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

습니다. 이제는 10분당 한 종류씩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앞으로 50년 안에 지구상의 25%의 생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 세대 지구를 파괴한 양이 3억만년 동안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최근 50년간 인류가 소비한 자원의 양이 1950년 이전 인류가 소비한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휴대폰 변경은 당사자에게는 즐거움이겠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다.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사이의 태평양에는 한반도 크기의 7배에 달하는 쓰레기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10% 정도만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중 70%는 가라앉고 30%정도가 떠다니는데, 이런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쓰레기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흐름 자체가 오늘의 지구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 인간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인간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맘껏 쓰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생명의 존엄성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탐욕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활동에 명쾌하게 선을 그

어놓았습니다. 선악과는 인간 한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여전히 선악과는 존재합니다. 모든 자원을 맘껏 쓸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되는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현재 인간과 자연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환경위기는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위기는 영성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21세기는 영적인 세대가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와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영성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돌보시는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수) 선교와 문화

— 김영동 교수 (장신대 교수)

6.9(수) 다문화가정 선교

— 윤대진 소장 (하남비전센터소장)

6.16(수) 선교의 성서적 기초

— 현창욱 교수 (장신대 교수)

6.23(수) 동유럽선교현황보고

— 정재화 선교사 (주님의교회 경기도행가리파송선교사)

성경암송대회, 은혜가운데 풍성하게 열려



지난 5월 19일 4층 대회의실에서 이슬비 성경암송학교의 '성경암송 공개 특강'이 열렸습니다. 수요 구역성경통독반이 주축이 되었고, 평소 말씀 암송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엠마오 교회의 한창수 목사님의 강의로 시작하여, 이슬비 성경암송학교의 임취선 실장의 암송의 구체적 방법과 연습이 있었고, 수료생인 장애경 집사의 실제 체험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한 목사님은 말씀 암송의 중요성과, 그동안 암송의 사역을 하면서 목도한 여러 사건과 말씀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소개하였고, 5살 어린아

이의 성경암송의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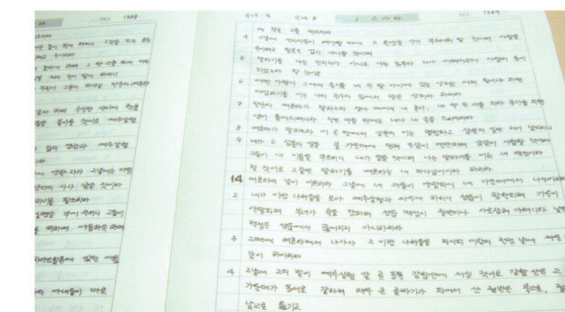
이어 임취선 실장님은 강의에서 신명기 6:4-9 말씀을 암송시범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면서 한절을 다섯 번씩 반복하고, 한절이 입에 붙어 줄줄 나올 때 그 다음 절을 반복 연습 한 후, 첫 절에 그 다음절까지 붙여서 연습합니다. 이것이 허니비(honeybee) 말씀암송법으로, 짧은 구절을 끊어서, 소리를 내어 꿀벌의 날갯짓처럼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애경 집사님은 이같은 요령으로 2천 절을 암송하였는데, 그 말씀의 유익으로 기도의 문이 열린 것과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내 머리에서 나온 혼계가 아니라, 내 안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와서 아이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행사를 참석하는 동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며 "저는 얼마나 구했는가, 얼마나 찾았는가, 얼마나 두드렸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성경구절을 암송하면서 제 자신을 거울에 비쳐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공광승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쓰기만 해도, 암송을 하거나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편집부>



캄보디아아이 행 섬낭 <의료선교부장 박일영 집사>

캄보디아 아이 행 섬낭 (HENG / SAMNANG) 은 4세 된 남아아이로 지난 해 저희 교회 캄보디아 비전트립 때 만난 아이입니다.

2009년 8월 프놈펜에서 진찰 시 복부에 15cm 정도 웬드볼 공 만한 덩어리가 달려 있었으며 교회에서 가져간 초음파 장비로 복부를 검사 해보니 종괴 내에 장이 탈장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시 배꼽탈장(Omphalocele)으로 쿤티아보파 소아병원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피부이식을 시행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수술 후 탈장된 부분이 점점 커져서 외견상 작은 공 하나를 안고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사정을 아신 캄보디아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님께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알아 보시고 비자, 여권 및 비행기표 등 힘든 모든 캄보디아 출국 수속을 다 맡아 주셨습니다. 엄마는 영어가 부족하고, 젖을 먹이는 8개월 되는 딸이 있어서, 아버지가 3주간 휴직을 하고 동행했습니다.

5월 10일 인천 공항에 입국하여 바로 서울 성모병원 외과 외래로 가서 다음날 입원 하였으며 5월 12일 6시

간에 걸친 힘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8일째까지 때때로 열이 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하였습니단 수술 후 12일째부터 식사를 시작 하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 후 17일째인 5월 29일 퇴원 하고 5월 30일 캄보디아로 돌아 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순간 순간 준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섬낭은 캄보디아어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섬낭에게 행운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 입퇴원 수속과 진료비에 도움을 주신 이준선님을 포함한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과 모든 분들, 섬낭과 아버지에게 습터를 제공해주시고 통역까지 준비하는 등 세심한 곳까지 도움주신 하남 외국인비전센터 윤대진소장님과 그 센터 식구들, 캄보디아에서 입출국과 앞으로 도와주실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님, 섬낭의 수술 후에 병실에 찾아와서 함께 하신 분들과 패유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역자와 교우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정에 이변 일을 계기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이 캄보디아 땅에 넘쳐 흘러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

님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받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